카드뉴스 Vol.4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탈북학생 교육 지원에 관심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학생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탈북학생과 멘토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초등교사 김사랑 선생님(가명)은 해외에 거주하다가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으로 선생님은 **마음속에 큰 울림**을 느꼈고,
'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사랑 선생님은 **교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활용**해
탈북학생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알게 되어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멘토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시 해외에 거주 중이라
ZOOM을 통해 비대면 멘토링을 하셨는데

멘티 학생도 사춘기를 겪고 있고,
학생과 먼 거리에 있으니
멘토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활동이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아쉬운 마음으로
첫 번째 멘토링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한국으로 귀국한 후
또 다른 멘티를 기다리던 중,
이번엔 밝고 씩씩한 이평화 학생(가명)과 매칭이 되어
영어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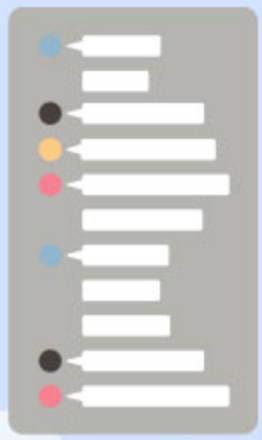
처음에는 ZOOM으로 멘토링을 하다가
이후 대면 멘토링을 하면서
학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
영어 멘토링을 포함하여 생활 멘토링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을 격려하고, 불안감이나 우울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생도 가감 없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선생님의 조언을 적극 수용하며
멘토링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였고

첫 번째 멘토링에서
선생님이 겪은 어려움을 위로하기도하며
선생님과 학생은
멘토링의 깊이와 폭을 넓혀갔습니다.



학생의 열의와 선생님의 사랑으로
학생은 원하던 **대학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고,

현재는 선생님과 함께
CNN방송을 보거나 신문기사를 읽고 토론하며
대학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멘토 선생님의 가족 행사에 멘티 학생을 초대하는 등
유대감을 더욱 넓혀가고

멘토링이 끝난 후에도 멘토-멘티로서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고
만남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멘토링을 통해 만났지만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서로의 삶 안에 깊숙이 들어온
멘토 선생님과 멘티 학생 이야기.

탈북청소년을 사랑하고,
학생 지도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분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탈북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요청할 자료가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43)530-9481~9 / ✉ hub4u@kedi.re.kr

더욱 흥미로운 소식과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

다음 카드뉴스도 기대해주세요 ~!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